

王夫之 《夕堂永日緒論·外編》의 ‘經義’ 論 고찰(2)

趙成千*

<목 차>

1. 들어가며
2. 經義論 형성 배경
 - 2.1 王朝聘의 혼도
 - 2.2 창작·선평 및 서문을 통하여
3. 문체 및 창작론
 - 3.1 문체 및 체제 인식
 - 3.2 ‘意’를 위주로
 - 3.3 개인 빈궁과 명리를 호소하지 말아야
4. 經義의 法
 - 4.1 死法
 - 4.2 活法
5. 나오며

1. 들어가며

經義는 중국 고대 科擧시험을 위한 문체이다. 유가경서로써 제목을 삼아 經文의 義理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렀다. 經義는 또한 時文 혹은 時藝라고도 불렀는데 이것은 唐宋이래의 ‘古文’과 대비해서 말한 것으로 현재 유행하는 문체라는 의미이다. 經義는 漢唐에서 비롯되어 北宋에서 그 체제를 형성하였다. 宋代의 經義는 明清시대 八股文의 모형으로 일정한 격식을 형성하여 제목

* 乙支大學校 스포츠 아웃도어학과 조교수.

형태·구조 등 다방면에서 이미 팔고문의 특징들을 구비하였다.¹⁾ 經義는 明清 시대에는 制義·制藝·八股文 등으로 불리었다.²⁾

經義는 과거시험을 위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일종의 격식과 수사를 통하여 성현의 미언대의를 드러내는 문체이다. 그러나 明清시대 經義의 형식은 지나치게 고정화 규격화되고 법은 死法이 강구되었다. 언어는 실속 없이 겉만 화려하고 풍격은 부드럽고 아름다웠다. 문인들은 문파를 세워 문파의 고정 격식으로 서로 모방하는 폐단을 가져왔다. 결국 경의는 성현의 미언대의를 드러내기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사대부들의 공명을 위한 도구,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여겨졌고 학술·문학의 각도에서 보면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왕부지는 經義를 하나의 독립문체로 여기고 四書五經의 微言大義를 드러내고 事理를 추리 확충하여 實用을 선양하기 위한 글쓰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창작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때문에 그의 經義는 四書五經의 경문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詮釋學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夕堂永日緒論·外篇》은 왕부지가 經義에 대한 열독·창작·교류를 통해 그것의 작법·당시 작가들의 창작태도·작품의 우열·시대 풍조 등을 논한 내용이다. 이는 經義에 대한 왕부지의 관점뿐만 아니라 중국 문예상의 經義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저작이다. 비록 五十四條, 一萬餘字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은 광범하고 심오하다. 經義의 문체 발생·작용 및 체제론, 經義와 독서의 관계, 經義의 창작 및 법도론, 자구운용 및 수사론, 작가·작품·시대 및 문파 비평론 등이다. 이러한 내용은 詩話式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그 이론의 전면적 고찰이 요구된다. 이에 《中國學論叢》 第41輯(高麗大學校 中國學研究所, 2013年 8月31日)의 <王夫之《夕堂永日緒論·外

1) “송대의 經義와 八股文은 經義로써 과거문장을 짓는 다는 점에서는 서로 같지만 작법 상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송대의 經義는 비록 경서에 의거하여 명제를 말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였고 무리하게 對偶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고정격식이 없었다. 古文의 論體에 가까웠다. 그러나 출제 범위가 점차 《四書》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義理를 드러내는 것은 朱熹의 《四書章句集注》를 표준으로 삼았다. 이 두 가지에서 팔고문의 요구에 근접하였다.”(楮斌杰 著, 《中國古代文體概論》, 北京大學出版社, 1998, 486-487쪽)

2) 왕부지는 八股文을 經義·制義·制藝 등으로 불렀다.

編》의 ‘經義’論 고찰(1)>에서는 經義와 독서의 관계·자구운용 및 수사론·비평론 등을 다루었고, 본고 <王夫之 《夕堂永日緒論·外編》의 ‘經義’論 고찰(2)>에서는 經義論의 형성배경·문체 및 창작 내용·經義의 法 등을 검토한다. 두 편의 연구를 통해 왕부지의 經義에 대한 글쓰기 정신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과거 글쓰기 문화유산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經義論 형성 배경

왕부지의 경의론 관련저작 및 관점이 나타난 문장 《夕堂永日緒論·外編》·《船山經義·序》·《薑齋文集》의 <石崖先生傳略>·<顯考武夷府君行狀>·<殷浴日時藝·序> 등을 고찰하면, 그의 경의론은 王朝聘의 훈도·창작 및 선포 경험·서문저술 등을 통하여 이론화, 체계화되었다.

2.1 王朝聘의 훈도

王朝聘은 왕부지의 부친으로 武夷公으로 불리었으며 字는 逸生 또는 修侯이다. 왕조빙은 왕부지의 어린 시절부터 經義를 훈도함으로써 왕부지의 경의관 확립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왕조빙은 “비록 科擧 응시를 위한 팔고문 짓는데 힘을 다했지만 天性和 만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고금의 변화를 헤아려서 심득한 내용을 표현하였으며”³⁾ 또한 경의의 창작에서 “매번 이치의 극진함을 한결같이 하고 자세한 추론과 판단으로 지극함을 삼고 화려한 수식을 많이 취하

3) 《薑齋文集·顯考武夷府君行狀》, “先君子爲領袖。雖從事制義。而究極天性物理。斟酌古今。以發抒心得之實。”

지 않았다.”⁴⁾ 이런 까닭으로 왕부지에 대한 교육에서도 ‘(詩)文賦’보다는 經義를 먼저 학습하게 하였다. 이러한 가르침과 영향 아래, 왕부지는 십만 수 이상의 經義를 읽고⁵⁾ 그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여 “經義는 본래 大義를 발양시키고 微言을 드러내거나 혹 또한 事理를 추리, 확충하여 實用을 선양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⁶⁾ “經義는 관직을 구하는 도구가 아니고 선비가 精微함을 연구하여 도를 극진하게 하는 것이다.”⁷⁾ “經義는 본래 성인의 말을 부연하는 것이니 詩賦와 견줄 것이 아니다.”⁸⁾ 등과 같은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2.2 창작·선평 및 서문을 통하여

왕부지는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경의를 열독하고 창작하였다. 또한 明人들의 經義를 선평하고 지인의 經義에 서문을 찬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그의 經義論은 이론화, 체계화되었다.

왕부지는 어린 시절부터 24세(明 崇禎 15년 壬午, 1642년)까지 경의를 창작하였는데, 주로 科擧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만년에 자신이早年에 지은 경의를 ‘벌레를 새기는 듯한 보잘것 없는 솜씨(雕蟲之陋)’(《船山經義·序》)라고 회고하였다. 明末淸初의 시대 격변기에 처하여 왕부지는 科擧에 대한 꿈을 버렸기 때문에 만년에 이르러서야 經義 39편을 창작하였는데, 《船山經義》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과거를 위한 창작이 아니라 경의의 본래 글쓰기 정신에 충실한 창작이다. 《船山經義》에는 왕부지 나이 65세, 癸亥(淸 康熙22년,

4) 위와 같은 곳, “每以理極一往, 翔折取意爲至, 而不多取績藻. 論文則以極至爲主, 恒苦作者不能臻已所未到.”

5) 《船山全書》 권15·《薑齋詩話》·《夕堂永日緒論·外編》, 嶽麓書社出版社, 1992, 867쪽, “余自束髮, 受業經義, 閱經義亦數萬首.” (이하 《夕堂永日緒論·外編》의 서명·출판사·년도생략·쪽은 條로 표시)

6) 위와 같은 곳, “經義之說, 本以揚推大義, 剔發微言; 或且推廣事理, 以宣昭實用.”

7) 《船山全書》 권10·《讀通鑑論》 권8·〈後漢靈帝〉, 325쪽, “經義者, 非干祿之器, 士之所研精以極道者也.”

8) 《船山全書》 권13·《船山經義序》, 631쪽, “經義本以引伸聖言, 非詩賦比者.”

1683년) 孟春에 지은 自序가 있는데⁹⁾, 여기에서 왕부지는 “經義는 聖賢의 말을 부연하는 것”이며, 《船山經義》를 짓게 된 동기는 “어린 시절 벌레를 새기는 듯한 보잘것 없는 솜씨로 경의를 지은 것에 대한 후회를 보완하여 다소라도 성현의 말을 드러내고 권계가 있게 하려 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왕부지의 경의는 早年과 晩年の 창작으로 구분되며 두 창작에는 그 목적·동기·시기 등이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가 經義를 어떠한 목적에서 창작하였든 그의 조년에서 만년까지의 창작경험은 그의 경의론을 이론화, 체계화시키는데 절대 비중을 차지한다.

왕부지는 만년에 明人들의 經義를 선평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制義選評》이다. 周調陽은 이에 대해 “明인이 지은 時文을 선록하여 핵심이 되는 곳에 評語를 가하였다. 評語는 頂批·總評으로 나누고 批를 頂端과 문장 뒤에서 구별하였는데 硃筆로 쓰고 行書로 되어 매우 힘 있고 빼어나 아마도 왕부지의 필치인 것 같다. 正文의 문장은 楷書인데 서법이 비교적 반듯하고 또박또박하다”¹⁰⁾고 하였다. 이 저작은 왕부지의 明人 經義에 대한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선평 기준·방식·작가·작품 등을 살펴볼 수 없다. 그러나 왕부지의 《古詩評選》·《唐詩評選》·《明詩評選》 등의 품평방식을 고찰하면, 《制義選評》에서도 經義를 選錄하고 자신의 관점을 제기하고 작가 및 작품의 우열을 비교하고 자구의 출처 및 유래를 분석, 고증하며 작품 전반을 평가하였으리라 짐작된다. 그의 明代 경의에 대한 선평경험은 그가 만년에 《夕堂永日緒論·外編》에서 명대 작가 및 작품을 선록하여 품평을 진행하며 그의 경의론을 체계화, 이론화 시키는데 절대 자양이 되었다.

왕부지의 《薑齋文集》을 고찰하면, 그가 지인의 경의에 서문을 찬술하면서

9) 《船山全書》 권13·《船山經義·序》, 631쪽, “忽念身本經生, 十歲授之父, 弱冠有司錄以呈之君, 自不敢曰此聊以入時, 壯夫不爲, 嘗于《九經》有所撰述, 而此藝缺然, 亦緣早歲雕蟲之陋, 深自慚任. 先儒言科舉業非不可學, 况經義本以引伸聖言, 非詩賦比者. ……今略作數十首以補早年雕蟲之悔, 稍有發明及勸戒, 不必聖賢之言如此, 期不叛而已.”

10) 湖南省·湖北省哲學社會科學學會聯合會合編, 《王船山學術討論集 下冊·王船山著述考略》, 中華書局, 532쪽.

자신의 관점을 제기한 문장들이 보인다. 예를 들면, 왕부지는 順治 11년 36세에 孫可望의 병란을 피하여 宜江의 산 속에서 은거하였는데, 이때 殷浴日¹¹⁾이 八股文을 지어 서문을 청하자, 그를 위해 《殷浴日時藝·序》를 지었다. 왕부지는 이 서문에서 팔고문은 기교를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明道'를 드러내는데 있으며 성인의 대업을 공경스럽게 하고 人事를 극진히 하여 군중과 더불어 잘 지냄으로써 하늘에 순응하여 도에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동시에 팔고문을 쓰는 사람 가운데 아첨하거나 쟁론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을 비판하였다. 문장에서 왕부지는 또한 은곡일이 지은 팔고문을 평가하였으며 그와의 우정, 동고동락의 추억을 서술하였다.

왕부지는 이처럼 서문을 통하여 자신의 관점을 드러내고 지인의 작품을 평가하였으며 시대 풍조를 논하였다. 이러한 서문의 찬술을 통해 그의 경의론은 구체화, 체계화 되었다.

왕부지의 《夕堂永日緒論·外編》의 경의론은 창작·선평·서문 찬술 경험의 結晶이다.

3. 문체 및 창작론

3.1 문체 및 체제 인식

왕부지는 經義를 음악·시가의 관계에서 논하였으며 경의를 詩歌와 동등하게 여기고 시가의 변화, 발전으로 인식하였다.

세상의 교화가 쇠미해지자 음악이 무너져 배우의 것으로 전락하였다. 그러나 天機는 막을 수 없었으니 겉으로 나와 학사의 마음을 자아내어 樂語는 홀로 詩로 전

11) 殷浴日은 이름이 銘으로 湖南 常寧 사람이다. 順治 연간의 貢生으로 禮州의 訓導를 지냈으며 저작으로 《殷浴日文稿》가 있다.

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詩는 樂德의 형용을 극진히 하기에 부족하자 또 겉으로 나와서 經義가 되었다. 經義는 비록 音律은 없으나 대구으로써 문장을 이루니, 才是 이로써 펼쳐지고 情은 이로써 이끌어지니 또한 이른바 말이 부족하여 그것을 길게 말한다는 것으로 실로 樂語의 갈래이다. 두 가지는 한결같이 내심에서 발로되는 진실한 정감으로 지극함을 삼은 것이다. 고유한 마음을 버리고 진부한 사람의 구속을 받는다면 그 비루하고 홀륭하지 못하니 병통이 서로 같다. 韻은 이것으로 조화되고 박자는 이것으로 규칙에 맞고 隱微는 이것으로 발로되고 深遠은 이것으로 이르게 되니 드러나 밝아짐은 있으나 덮이어 희미해짐은 없으며 온화하고 여유로움은 있으나 거세고 어그러짐은 없다. 음악에 밝은 사람이라야 詩를 논할 수 있고 經義를 논할 수 있다.¹²⁾

때문에 경의는 그 고유의 체제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사마천과 반고의 문장은 역사 필체이고 한유와 구양수의 序·記는 雜文으로 모두 經義와는 서로 관계없다. 經義는 두 뜻을 곧추 세워서 經文을 引伸하여 그 입언의 취지를 드러내는 것이니 어찌 역사를 기술하는 방법과 序·記를 쓰는 방법이 섞여 들어갈 수 있으리오? 한 단락은 반드시 한 편과 서로 어울려야 하고 한 구는 반드시 한 단락과 서로 부합하게 되어야 한다. 저 체제를 끊고 갈라서 이 체제 가운데 억지로 끼워 넣으면 어찌 더 이상 체제를 이룰 수 있겠는가?¹³⁾

왕부지는 經義는 그 고유 체제가 있기 때문에 역사·序·記·四六文¹⁴⁾ 등의 체제를 섞어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위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경의의 체제로서 章法을 중시하고 있다. 章法이란 문장의 내용의 변화, 발전에 따라 上下句가 상호 承接, 引出하고 단락과 단락이 유기관계로 구성되어 전체의 首尾가 조응되어 내부 맥락이 형성하여 意가 문장전체에 일관되게 흐르는 것이다.

12) 《夕堂永日緒論·序》, “世教淪夷, 樂崩而降于俳優. 乃天機不可式遏, 旁出而生學士之心, 樂語孤傳爲詩. 詩抑不足以盡樂德之形容, 又旁出而爲經義. 經義雖無音律, 而比次成章, 才以舒情以導, 亦所謂言之不足而長言之, 則固樂語之流也, 二者一以心之元聲爲至. 舍固有之心, 受陳人之束, 則其卑陋不靈, 病相若也. 韻以之諧, 度以之雅, 微以之發, 遠以之致, 有宣昭而無罷靄, 有淡宕而無獷戾; 明于樂者, 可以論詩, 可以論經義矣.”

13) 13條, “司馬·班氏, 史筆也; 韓·歐序記, 雜文也; 皆與經義不相涉. 經義豈兩義以引伸經文, 發其立言之旨, 豈容以史與序記法攙入? 一段必與一篇相稱, 一句必與一段相稱. 割彼體, 生入此中, 豈復成體?”

14) 9條, “經義以引伸聖賢意立言, 初非幕客四六之比.”

3.2 ‘意’를 위주로

왕부지는 시가에서 뿐만 아니라 경의에서도 意를 위주로 창작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意란 문장의 주지·사상내용을 말한다. 시가의 意는 객관경물로부터 자극을 받아 시인의 내면에서 온양된 주관적, 형상적 정서를 말하고, 經義에서의 意는 聖賢의 경전 및 저작과 융화되고 일체가 되어 내면에서 체득한 객관적, 이지적 사상내용이다. 意는 시가 및 경의 모두에서 창작의 주도 작용을 한다. 때문에 ‘以意爲主’는 모든 문예의 창작강령이 된다.

이백·두보는 안으로는 才情을 지극히 하고 밖으로는 物理를 두루 살펴 언어에는 반드시 시인의 뜻(意)이 있고 시인의 뜻(意)은 반드시 가슴에서 나왔으니 때로는 彫琢하고 때로는 直率하게 하고 때로는 美麗하게 하고 때로는 清淡하게 하고 때로는 放縱하게 하고 때로는 收縮하게 하게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견비해서 달렸으니 오직 시인의 뜻(意)이 이르는 곳에 神氣가 수행하여 가니 마치 未央宮·建章宮이 천개의 문과 만 채의 집으로 정교하고 아름다우면서 확 트여 막힌 곳이 없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경지를 大家라고 한다. 그러나 經義를 논하는 사람은 王鑿을 추존하여 大家의 종주로 여겼다. 王鑿은 단지 안배가 적당하고 균제롭게 할 수 있었으니 세 칸 다섯 가(架)인 하나의 관아관청이 될 뿐이었다. 그렇더라도 가령 의뢰하고 모방하면 별로 서로 멀어지지 않는 수 있다. 그러나 大義와 微言은 모두 황급하게 연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천하의 문인과 학자를 속박하는 것은 하나의 법일 뿐이다. 비루한 儒者는 그가 좇아서 갈 수 있는 門庭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같이 大家로 여기고 그에게 돌아간다. 300여년에 마치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되었으니 후인으로 하여금 한 세대 동안에 안목을 가진 사람이 없음을 비웃지 않게 할 수 있을까?¹⁵⁾

시가창작에서 李白·杜甫가 ‘大家’가 되고, 작품이 아름답고 심원한 境界를 가지게 됨은 바로 ‘意’가 창작의 원천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대의 경의

15) 2條, “李·杜則內極才情, 外周物理, 言必有意, 意必絳衷; 或雕或率, 或麗或清, 或放或斂, 兼該馳騁, 唯意所適, 而神氣隨御以行, 如未央·建章, 千門萬戶, 玲瓏軒豁, 無所窒礙: 此謂大家. 而論經義者以推王守溪爲大家之宗, 守溪止能排當停勻, 爲三間五架一衙官廡宇耳; 但令依倣, 卽得不甚相遠; 大義微言, 皆所不遑研究: 此正束縛天下文人學者一徽纆而已. 陋儒喜其有牆可循以走, 翕然以‘大家’歸之, 三百餘年, 如出一口, 能不令後人笑一代無有眼人乎?”

는 그 창작에서 '意'를 위주로 하지 않고 王鑿을 大家로 추존, 상호 모의하고 경문을 견강부회하여 창작함으로써 천편일률이 되게 하였다.

왕부지는 '以意爲主'의 창작은 결국 작품 '境界'의 大小, 眞假를 결정함을 강조하고 있다.

3.3 개인 빈궁과 명리를 호소하지 말아야

왕부지는 詩歌에서 개인의 빈천을 호소하고 궁상을 탄식하며 재물과 풍족한 생활을 갈망하는 감정을 표현함을 반대하였다.

재화가 넉넉하지 못하고 생활이 풍족하지 못하고 처첩 받들이 순조롭지 못하고 다니면서 빌었던 요구가 마음에 차지 않는 것을 길게 말하고 탄식하며 그것을 그럴싸하게 꾸며 문장으로 하고 금전과 비단(金帛)에 대한 갈망과 취하고 배부름(醉飽)에 대한 갈구의 정을 스스로 그려내니 부끄럽게도 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자는 오직 杜甫일 뿐이다. 오호라! 杜甫는 뜻을 말하는데 거짓으로 하면서 남을 현혹하였으니 장차 떠돌면서 구걸하는 시를 짓는 나무가 되었으나 그 시에 “저오기 稷과 契에 비교해본다”라고 하였다. 그 私欲을 채우는 데 급급하여서는 슬픔으로 울었으니 그 시에 “먹다남은 술과 차가워진 요리를 구걸하니 이르는 곳마다 가슴 속에 슬픔과 고통이 저며드네”라고 하였다. ……杜甫는 그 本心을 잃었고 또한 安足이 없었을 뿐이다. 韓愈가 그것을 계승하고 孟郊가 그것을 본받았으며 曹鄴이 그것을 전수하였으니 詩가 드디어 천하에서 없어지게 되었다.¹⁶⁾

그는 시가 개인의 빈천을 호소하고 궁상을 탄식하는 도구로 전락하였기 때문에 천하에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가 이처럼 시에서 '私欲' 추구를 배척한 것은 私欲은 '天理'의 발현을 막는다고 여겼기 때문이다.¹⁷⁾

16) 《船山全書》 3·《詩廣傳》 권1·〈邶風·論北門〉 325~326쪽, “若夫貨財之不給, 居食之不腆, 妻妾之奉不諧, 游乞之求未厭, 長言之, 嗟嘆之, 緣飾之爲文章, 自繪其渴於金帛, 設於醉飽之情, 靦然而不知有譏非者, 唯杜甫耳。嗚呼! 甫之誕於言志也, 將以爲游乞之津也, 則其詩曰‘竊比稷與契’; 迨其欲之迫而哀以鳴也, 則其詩曰‘殘杯與冷炙, 到處潛悲辛’。……甫失其心, 亦無足耳。韓愈承之, 孟郊師之, 曹鄴傳之, 而詩遂永亡於天下。”

17) 《船山全書》 6·《讀四書大全說卷六·孟子告子上篇》, 1082쪽, “有私意私欲爲之阻隔而

왕부지는 經義에서도 개인의 궁핍, 빈천 등을 비통해 하고 명리를 부르짖는 마음으로 개인의 희노애락의 감정을 분출시키는 것을 반대하였다.

궁핍을 호소하고 명리를 부르짖는 마음으로 孔子·孟子的 進退를 말하고 말이 부끄러움이 없으며 또한 쾌속의 필치를 사랑하니 세상의 교화가 어떻게 쇠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현은 비록 혼란을 다스려 정상으로 회복시켜 천하를 안정되게 하는 것으로 뜻을 삼지만 그러나 六龍을 타고 하늘을 날면서 잠복하기도 하고 높이 날아오르기도 하니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하늘이 없고 편안하지 않을 수 없는 땅이 없다. 그러나 經義를 짓는 사람은 魯·衛·齊·梁의 君臣들을 취하여 심하게 욕을 하여 그의 분노를 솟아내지 않으면 슬픈 노래를 불러 눈물 흘리어 마치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니 그 추악함은 심하였다. “방 앞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못 사람 속에서 자신을 숨겼네”는 孟郊가 孟郊가 되는 까닭을 말하는 것이고, “근심 가운데 하늘이 누차 어두웠네”는 譚元春이 譚元春이 되는 이유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군자로 하여금 이처럼 악착스럽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일찍이 韓愈는 道를 알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는데 揚雄 등을 따라서, <進學解>·<送窮文>으로 버럭버럭 성을 내고 줄줄 눈물 흘리며 울었다. 이것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가 “堯·舜·禹·湯이 서로 전했다”라고 말한 것은 어찌 일찍이 꿈속에서 무슨 일을 전했다는지를 알 수 있으리오! 經義가 道를 해친다는 것이 이 보다 심한 것이 없으니 도리어 詩賦가 봄 꽃, 가을 달 사이에서 자유자재로운 것만 못하다.¹⁸⁾

그는 개인의 명성이나 이익을 위해 문장을 지을 경우 정신이 맑지 못하고 氣가 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心氣를 이끌어서 天理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여겼다. 고급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작품은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사건을 풍부하게 경험하고 객관경물을 두루 체험하여 가슴 속에 온양된 뜻을 기탁하여 심원한 ‘境界’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하였다.¹⁹⁾

天理不現.”

18) 7條, “以酸寒齟齬之心說孔·孟行藏, 言之無作, 且矜快筆, 世教焉得而不陵夷哉? 聖賢雖以撥亂反正安天下爲志, 然乘六龍以御天, 潛亢飛躍, 無不可樂之天, 無不可安之土, 而作經義者, 非取魯·衛·齊·梁之君臣痛罵以洩其忿, 則悲歌流涕若無以自容, 其醜甚矣. ‘榜前潛下淚, 衆裏卻藏身’, 孟郊之所以爲郊也. ‘愁中天屢陰’, 譚元春之所以爲元春也. 而使君子如此其齷齪乎? 愚嘗判韓退之爲不知道, 與揚雄等, 以<進學解>·<送窮文>悻悻然怒, 濟濟然泣; 此處不分明, 則其云堯·舜·禹·湯相傳者, 何嘗夢見所傳何事! 經義害道, 莫此爲甚, 反不如詩賦之儻然於春花秋月間也.”

19) 53條, “科場文字之蹇劣, 無足深責者. 名利熱中, 神不清, 氣不昌, 莫能引心氣以入理而快出

4. 經義의 法

4.1 死法

명대는 門庭의 수립 풍토가 매우 성행하였는데, 이것은 문학창작의 분위기를 선도하고 조성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불량한 풍조를 조성하였다. 예를 들면, 門庭 간에 정치적 목적이나 문학적 주장에 따라 상호 동조하거나 비방한 것, 고대 전적이거나 전인의 창작으로부터 자구를 따다가 門庭의 ‘고정격식(局格)’이나 ‘死法’에 배열, 포진시켜 창작한 것 등이다.²⁰⁾ 결국 門庭이 성행할수록 死法도 증가하고 死法이 늘어날수록 문예의 창작 및 예술생명은 사라졌다. 이에 왕부지는 당시 문정의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局格’이나 死法에 의거하여 문예를 창작하는 풍조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가 詩文의 창작에서 死法으로 비판하고 반대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4.1.1 ‘一虛一實’·‘虛起實承’

왕부지는 詩文中에서 虛字와 實字의 사용에서 ‘虛實相生’을 강조하였다. “虛字의 경우에는 實하게 하여 은미함을 드러내고 實字인 경우는 虛하게 하여 막히지 않게 해야 한다.” “만약 굳더더기 말을 사용하여 實에 돌아가게 하고, 處處

之, 固也. …漢·晉以上, 惟不以文字爲仕進之羔雉, 故各隨所至, 而卓然爲一家言. 隋·唐以詩賦取士, 文場之賦無一傳者, 詩唯曲終人不見, 江上數峰青一律而已. 燕·許·高·岑·李·杜·儲·王所傳詩, 皆仕宦後所作, 閱物多, 得景大, 取精宏, 寄意遠, 自非局促名場者所及.”

20) 《夕堂永日緒論·內編》31條, “所以門庭一立, 舉世稱爲‘才子’, 爲‘名家’者有故. 如欲作李·何·王·李門下廝養, 但買得《韻府群玉》·《詩學大成》·《萬姓統宗》·《廣輿記》四書置案頭, 遇題查湊, 卽無不足. 若欲吮竟陵之唾液, 則更不須爾, 但就措大家所誦時文之‘·’于·‘其’·‘以’·‘靜’·‘澹’·‘歸’·‘懷熟活字句湊泊將去, 卽已居然詞客.”

《夕堂永日緒論·內編》34條, “立門庭者必餽釘, 非餽釘不可以立門庭. 蓋心靈人所自有而不相貸, 無從開方便法門, 任陋人支借也.”

에는 단지 쇠약한 氣에 의거하여 잠시라도 흔들리게 하면 제목의 노예가 된다.”²¹⁾ 때문에 詩文에서 ‘一虛一實’의 법을 반대하였다.

一虛一實, 一景一情의 說이 나오자, 詩는 드디어 함정이 되고 질곡이 되고, 살아 있는 송장이 되었으니 아! 두렵구나.²²⁾

하나의 “虛가 일어나면 實이 이어받고(虛起實承)”, “反이 일어나면 正은 내려가고(反起正倒)”, “앞에서 꿰어 올리면 뒤에서는 감치는(前鉤後鎖)” 것과 같은 死法에 의거하여 擘호를 메우고 글자를 바꾸는 식으로 문장을 짓고서는 스스로 문장의 대가라고 기만하려고 하면, 어찌 그것이 용이하겠는가?²³⁾

‘一虛一實’·‘反起正倒’·‘前鉤後鎖’ 등은 “擘호를 메우고 글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문장을 짓는 것으로 제목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작가를 함정에 빠뜨리고 ‘桎梏’시키는 것이다.

4.1.2 鉤鎖之法

經義는 반드시 하나의 제목에 하나의 이치를 담아야 하고 한 편에는 하나의 뜻을 실어야 한다. 그러나 ‘鉤鎖之法’은 四書·五經 가운데 서로 연속되지 않는 두 부분을 억지로 ‘앞에서 꿰고 뒤에서 감치어(前鉤後鎖)’ 고리를 잇대어 꿰듯이 문장을 짓는 것이다. 때문에 ‘鉤鎖之法’은 공자나 맹자라도 문리를 통할 수 없는 ‘魔鬼’와 같은 법이다.

비무한 사람은 없어서 연결하여 호응시키는 법으로 문장을 논하고 그런 까닭에 없어서 연결하여 호응시키는 법으로 글을 해석하니 어찌 옛날 성현이 또한 茅坤으로부터 唐宋八大家의 衣鉢을 전수받았으리요? “哀公이 정사를 묻다”와 같은 장에

21) 6條, “大要在實其虛以發微, 虛其實而不窒. 若以填砌還實, 而虛處止憑衰弱之氣姑爲搖曳, 則題之奴隸也. 四家中, 亦唯昆湖免此.”

22) 《船山全書》 권14·《古詩評選》 권5·李武帝<濟曲阿後湖>評語. 11쪽, “一虛一實, 一景一情之說生, 而詩遂爲穿爲梏爲行尸, 噫可畏也哉.”

23) 14條, “欲據一虛起實承·反起正倒·前鉤後鎖之死法, 填腔換字, 自託宗工, 何其易也!”

서 “知仁勇”의 仁에서 “仁義禮”의 仁을 곁어서 올리고 “不動心”의 心에서 “마음에서 구하지 말라”의 心(心)으로 “不動”의 心을 곁어서 올렸다. 단지 呼應의 법 가운데에서 시달리다가 죽게 되면 더 이상 공자나 맹자라 하더라도 문리를 통달하게 할 수 없는데 하물며 정밀한 의의에 있어서라! 마귀와 같은 법이 흘러 퍼지게 되면 그 폐단은 이에 이르게 된다.²⁴⁾

經義는 성현의 말을 체득하고 그것의 실마리를 끌어내고 말이 다하면 그쳐야 한다. 그러나 ‘鉤鎖之法’은 한편에서 단락을 두 개로 나누고, 두 개의 다른 뜻을 억지로 잡아끌면서 문장을 짓기 때문에 문장의 기세 및 추동력이 사라지고 문장 전체가 생동적,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²⁵⁾

經義는 하나의 제목에 자연히 하나의 이치가 있어야 하고 한 편에는 자연히 하나의 뜻을 실어야 하니 어찌 두 개의 필치가 있을 수 있는가? 이미 반드시 하나의 필치이어야 한다면 어떻게 엮어서 연결할 수 있겠는가? 단지 비루한 사람의 습성에 따라 길게 할 수 없으니 마치 老患으로 숨을 헐떡거리며 끊어질 듯 할 때는 반드시 쉬어야 다시 이어진다. 때문에 엮어서 연결하는 법이 한번 세워지면, 천하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그것을 따르는데 獨參湯을 만들어 남은 목숨을 연명시키는 것이다.²⁶⁾

때문에 ‘鉤鎖之法’으로 전후 문장을 연결하는 짓는 것은 마치 ‘獨參湯’으로 죽어가는 목숨을 연명시키는 것과 같다.

4. 1. 3 ‘開門見山’·‘虛冒籠起’

經義의 문장은 破題·承題·起講·入手·起股·中股·後股·束股 8단계에

24) 30條, “陋人以鉤鎖呼應法論文, 因而以鉤鎖呼應法解書, 豈古先聖賢亦從茅鹿門受八大家衣鉢邪? 如哀公問政章, 於知仁勇之仁, 鉤上仁義禮之仁; ‘不動心章, 以勿求於心之心, 鉤上不動之心; 但因死呼應法中, 更不使孔, 孟文理得通, 何況精義! 魔法流行, 其弊遂至於此.”

25) 10條, “鉤鎖之法, 守溪開其端, 尙未盡露痕迹; 至荊川而以爲秘密藏. 茅鹿門所批點八大家, 全恃此以爲法, 正與皎然《詩式》同一陋耳. 本非異體, 何用環紐? 搖頭掉尾, 生氣既已索然, 並將聖賢大義微言, 拘牽割裂, 止求傀儡之線牽曳得動, 不知用此何爲!”

26) 31條, “經義, 一題自一理, 一篇自一意, 豈容有二筆邪? 既必一筆, 何用鉤鎖? 止緣陋人氣不能長, 如老病喘促, 必須歇息, 方更續續. 故鉤鎖之法一立, 而天下翕然從之, 爲獨參湯以延殘喘.”

따라 전개되는데, 각 단계마다 각각 역할과 작용이 있다. 그러나 ‘開門見山’은
 立言의 취지를 문장이 시작되자마자 드러내는 것이다. 때문에 입언의 취지는
 문장이 전개됨에 따라 점차 지리멸렬해지고 각 단계의 역할과 작용은 무의미
 해진다.

이른바 “문을 열자 산을 본다”라는 것이 있는데 먼 산을 보는 것만을 말한 것일
 뿐이니 진실로 멀리 어렵 못하고 아득하게 비추는 것으로 뛰어난을 삼아야 한다.
 만약 하나의 산이 가파르게 솟아서 문을 마주하고 우뚝 솟아 있다면 담장을 마주
 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지요? …… 졸렬한 문장에서는 시작하는 곳에서 바로
 하나의 별안간 하는 말을 써서 말을 끝내버리고 그것을 문을 열자 산을 본다고 하
 니 향후에는 다시 어디에서부터 붓을 대야할지를 알지 못한다. …… 비루한 사람이
 스스로 문장을 지음에 이미 이와 같고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현의 문장을 해석
 한다. …… “誠意”장에서는 “스스로 기만하지 않아야 한다(毋自欺也)”의 ‘也’자로써
 위의 ‘者’에 호응을 시켜서 한 마디 말로 말을 끝냈으니 뒤에 가서는 다시 지리멸렬
 해졌다. 모두 문을 마주한 산 하나가 아득한 하늘과 먼 경치를 차단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찌 고인이 입언을 하여 이리저리 말을 해 가지만, 요지는 바
 로 결말의 부분에 있다는 것을 알리요!²⁷⁾

‘虛冒籠起’는 ‘開門見山’과는 반대로 立言의 취지를 공허하게 드러내고 막연
 하게 일으켜서 일, 이 백 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목의 취지를 드러낸다. 이
 러한 문장은 立言의 시말, 전후가 없다.

이와 반대의 것이 있는데 공허하게 드러내고 막연하게 일으켜서 일, 이 백 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목의 면모를 드러내는데 이러한 방식은 蘇軾·曾鞏으로부터
 나왔지만 韓愈·柳宗元·歐陽修는 그래도 완전히 그러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식·
 증공은 오직 이러한 방법으로 章·疏·序·記를 써서 자신의 뜻을 표현하였다. 經
 義는 자연히 立言을 하는데 처음과 끝이 있다. 사람의 죽보처럼 단지 본성의 기원
 과 흐름만을 서술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混沌의 초기부터 盤古에 관한 이야기를 기

27) 41條, “有所謂開門見山者, 言見遠山耳, 固以縹緲遙映爲勝; 若一山壁立, 當門而峙, 與面牆
 奚異? ……劣文字起處卽着一斗頓語說煞, 謂之開門見山, 不知向後更從何處下筆 …… 陋人自
 爲文既爾, 又且以解聖賢文字. …… 誠意章, 以毋自欺也’也’字應上’者’字, 一語說煞, 後復支
 離. 皆當門一山, 遮斷遙天遠景. 豈知古人立言, 迤邐說去, 要歸正在結煞處哉!”

술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는가? 옛 사람이 그를 “장수 노인”이라고 하였는데 참으로 그러하다.²⁸⁾

‘開門見山’·‘虛冒籠起’와 같은 글쓰기 방식은 經義의 글쓰기 미학원칙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문장의 기세·조리·맥락이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입언의 취지를 드러내지 못한다.

이상의 死法들은 모두 아는 것이 협소함으로써 기인되고 문장짓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것이다.²⁹⁾

4.2 活法

왕부지가 死法을 부정한 것은 창작의 자유를 구속하고 질곡 시키는 기계적, 도식적인 法을 부정한 것이지 無法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때문에 그는 “법이 없고 맥락이 없으면 더 이상 문장을 이루지 못한다.”³⁰⁾라고 하였다. 이것은 死法에 대한 비판의 초점이 ‘死’에 있고 ‘法’에 있지 않음을 말한다. 왕부지는 死法을 부정하고 문예창작규율로써 活法을 강조하였다. 그가 말하는 活法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4.2.1 ‘鉤略點綴’·‘疏通條達’·‘搜索幽隱’

‘鉤略點綴’은 고리처럼 연결하고 돋보이게 하여 微言을 표현하는 것, ‘疏通條達’은 소통시키고 조리 있게 통달시켜 立言의 취지를 환히 알게 하여 쉽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 ‘搜索幽隱’은 은미한 뜻을 찾아서 사람들의 性情을 깨우치는

28) 42條, “抑有反此者, 以虛冒籠起, 至一二百字始見題面, 此從蘇·曾得來, 韓·柳·歐陽尙不盡然. 然蘇·曾但以施之章·疏·序·記, 抒己意者. 經義自有立言端委. 如人家族譜, 但叙本姓源流, 何用自從混沌初開盤古出說起也? 昔人謂之爲壽星頭, 洵然.”

29) 《夕堂永日緒論·內編》 13條, “死法之立, 總緣識量狹小”·“經義之有茅鹿門·湯賓尹·袁了凡皆畫地成牢以陷人者, 有死法也.”

30) 5條, “無法無脈, 不復成文字.”

것, 혹은 고급의 작품을 널리 수집하여 검증을 거쳐서 이치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이외에 經義의 역할은 없다고 하였다.³¹⁾

4.2.2 脈絡과 條理

양부지는 詩歌에서처럼³²⁾, 經義에서도 脈絡과 條理를 강조하였다. 맥락이란 내용의 변화발전에 따라 작품이 내부에 형성되는 내부구조, 조리란 내용이 수미가 들어맞고 체계가 서는 갈피를 말한다. 이러한 맥락과 조리를 法이라 하였다.

맥락이라는 것은 마치 사람의 신체에 12맥락이 있는데, 발끝에서 출발하여 정수리 꼭대기에 이르고 근육 속에 숨겨서 督·任·衝·帶 네 맥이 서로 집이 되니 얽히어 둘러싸고 두루 돌면서 약간씩 움직이면서 이리 저리 떠돌아다니면서 끝이 없으니 합쳐져서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능(生理)이 된다. 마치 하나가 부르면 하나가 대답하고 하나가 일어나면 하나가 거두고 앞과 뒤에서 서로 엮고 그것을 끌어서 합치되도록 하니 이것은 꼭두각시의 실이니 생기가 없이 단지 끌어당기고 늘어놓는 것에만 기대니 어찌 맥락이라고 이를 수 있는가? 네 사람 가운데 오직 瞿景淳만이 가혹하게 구속하는 법이 없어서 법을 가졌다고 할 수 있었고 갈라 나누고 결합시켜 연결하는 맥락이 없어서 맥락을 가졌다고 할 수 있으니 그 나머지는 아는 바가 아니다.³³⁾

신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12맥락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살아있는

31) 6條, “鈎略點綴以達微言, 上也. 其次, 則疏通條達, 使立言之旨曉然易見, 俾學者有所從入. 又其次則搜索幽隱, 啓人思致, 或旁輯古今, 用徵定理. 三者之外, 無經義矣. 大要在實其虛以發微, 虛其實而不窒. 若以填砌還實, 而虛處止憑衰弱之氣姑爲搖曳, 則題之奴隸也. 四家中, 亦唯崑湖免此.”

32) 《船山全書》 권14·《古詩評選》 권1·魏后甄氏<塘上行>評語, 510쪽, “詩固自有絡脈, 但不從文句得耳. 意內初終, 雖流動而不舍者, 卽其絡也.”
《船山全書》 권14·《古詩評選》 권4·陸雲<答兄平原>評語, 699쪽, “詩固不可以律度拘, 或可以條理求, 至此則首尾無端, 合成一片, 但吟咏之下不昧初終耳.”

33) 5條, “謂之脈者, 如人身之有十二脈, 發於趾端, 達於顛頂, 藏於肌肉之中, 督任衝帶, 互相爲宅, 縈繞周回, 微動而流轉不窮, 合爲一人之生理. 若一呼一諾, 一挑一繳, 前后相鉤, 拽之使合, 是傀儡之絲, 無生氣而但憑牽縱, 詎可謂之脈邪? 四家中唯瞿文懿能無束濕之法而有法, 無分析鈎鎖之脈而有脈, 其餘非所知也.”

기능을 하듯이 經義도 한 편에서 내부에 조리와 맥락이 형성되어 首尾가 조응되고 연결되어야 생동하는 문장이 된다. 그러나 脈絡이나 條理와 대치되는 '巧搭'과 같은 작법이 유행함으로써 經義가 전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³⁴⁾ '巧搭'이란 문답의 조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여러 말을 잘라서 이리저리 연결시킴으로써 문장의 전후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위 문장에서 活法인 脈絡·條理와 死法인 '巧搭'을 서로 대비시켜 경의의 법으로 脈絡과 條理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4.2.3 成章

왕부지는 詩賦·雜文·經義에서 모두 법으로 '成章'을 강조하였다.³⁵⁾ '成章'이란 한 편에 하나의 뜻을 실어서 一氣가 관통되게 하고 사건의 발전에 따라 始作과 終尾가 일관되게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그는 '成章'으로 고금 문장의 우열을 판단하는 척도로 삼았다.

한 편에 하나의 뜻을 실어야 하니 하나의 의가 되어야 하나의 氣로부터 시작과 끝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니 이것을 成章이라 한다. 詩賦·雜文·經義가 법도에 합치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으로 고금 사람들의 문장을 감별하면 醇美함과 결함이 저절로 드러난다.³⁶⁾

왕부지가 제창한 '成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문예창작의 기본 원칙이다. 모든 문예창작에서 작가는 한 작품을 통해 전달하려는 하나의 일관된 주지를 설정하여 표현해야 한다. 만약 한 작품에 두 개 이상의 주지를 표현한다면 작품 전체의 文氣가 일관되지 않고 首尾가 조응되지 않으며 작품의 주지

34) 51條, “橫截數語乃至數十語, 不顧問答條理; 甚則割裂上章, 連下章極不相蒙之文, 但取字迹相似者以命題, 謂之‘巧搭’……經義之不足傳, 非此等使然與?”

35) 《薑齋詩話》卷下·《清詩話》, 12쪽, “起承轉收, 一法也. 試取初盛唐律驗之, 誰必株守此法者? 法莫要於成章, 立此四法, 則不成章矣.”

36) 12條, “一篇載一意, 一意則自一氣, 首尾順成, 謂之成章; 詩賦·雜文·經義有合轍者, 此也. 以此鑒古今人文字, 醇疵自見.”

가 분명하지 않아 意境있는 예술작품이 되지 못한다. 작자가 작품에 하나의 일관된 뜻을 표현하면 독자는 작품을 통해 그 주지를 다양하게 해석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한다. 왕부지의 이른바 “작자는 일관된 생각을 표현하면 독자는 각기 자신의 정서로써 스스로 체득한다”³⁷⁾는 바로 이를 말한다.

왕부지가 死法을 부정하고 活法을 주장한 것은 그의 문예관을 대변한다. 그는 死法을 묵수하며 功名을 위한 經義를 부정하고 活法을 제창하여 ‘意境’을 위한 經義를 창작하여 성현의 뜻을 부연하고 미연대의를 드러내어 사람들의 性情을 깨우치는 효용을 갖게 하였다.

5. 나오며

왕부지는 經義를 하나의 독립문체로 여기고 그것의 고유 기능과 체제를 강조하고, 실제창작을 하였다. 때문에 그의 經義는 四書五經의 경문을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四書五經의 詮釋學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그의 《夕堂永日緒論·外篇》은 經義라는 전통 글쓰기의 문화유산이 간직되어 經義를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 문헌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왕부지가 經義의 창작에서 ‘意’를 위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私欲’의 표현을 반대한 것, 經義의 法으로 주장한 바의 活法들은 그의 글쓰기 및 예술정신을 나타낸다.

본고는 《夕堂永日緒論·外篇》의 經義論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왕부지의 글쓰기 및 예술정신을 살필 수 있고 經義에 대한 종래 인식을 새롭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www.kci.go.kr

37) 《薑齋詩話》 卷上·《清詩話》 上冊, 3쪽, “作者用一致之思, 讀者各以其情而自得.”

< 參考文獻 >

- 王夫之 著, 《船山全書》(全 十六冊), 湖南, 嶽麓書社出版社, 1988-1996.
 王夫之 著, 《王船山詩文集》(上·下), 香港, 中華書局香港分局, 1974.
 王夫之 等 撰, 《清詩話·董齋詩話》(上·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曾昭旭 著, 《王船山哲學》, 遠景出版社, 民國72年.
 褚斌杰 著, 《中國古代文體概論》(增訂本), 北京大學出版社, 1990.

< 中文提要 >

本文以《夕堂永日緒論·外篇》爲主, 考察了王夫之對經義的觀點。本文內容主要探討王夫之對經義薰陶與創作、選評、序文、論、文體及創作論、經義的法度。本文的意義在於理解王夫之對經義的寫作及藝術精神而且改變對經義的老觀念。王夫之認爲經義是一種文體, 強調應根據其特有的功能與體制來進行實際創作。因爲他的創作對四書五經的詮釋學有價值, 可能以他的經義進行與前人不同的經文解釋。他的《夕堂永日緒論·外篇》保存著對經義的寫作及藝術精神, 以可能理解經義的貴重的資料貴、文獻有價值。王夫之在經義的創作上強調以“意”爲主, 反對“私欲”從筆端流瀉出來, 以經義的法提倡“活法”反對“死法”, 這些觀點反映了王夫之對經義的寫作及藝術精神。

關鍵詞: 王夫之、經義、《夕堂永日緒論·外篇》、以意爲主、死法、活法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9. 30.	2013. 10. 31.	2013. 11. 18.	2013. 11. 26.	2013. 11. 30.